

제주도 종교지형에 대한 분석

- 2007 종교학과 학술답사 지역을 중심으로 -

안 국 진*

目 次

- I. 머리말
- II. 제주도 종교지형의 중심 : 무속
- III. 제주도 종교지형의 주변부
- IV. 결론

I. 머리말

종교적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삶과 종교가 맞닿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삶과 종교의 어울림은 근대화, 세속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약화되거나 가려지기도 하지만, 삶과 종교가 밀접히 맞닿아 역동적으로 어울리는 경우도 있다. 삶과 종교가 어울리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종교가 삶의 영역에 밀접히 닿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종교'를 대면하는 일은 지적 욕구와 학문적 열정으로 가득 찬 종교 학도들에게 가슴 뛰는 일이다.

예부터 제주도는 민간 신앙인 '무속'이 삶의 영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육지에 비해 외래 종교의 유입이 늦은 이유도 있었지만, 외래종교의 유입 속에서도 무속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에 대한 신앙이 유지되어 무속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무속을 비롯한 여러 종교가 삶과 밀접히 닿아 이들 간의 어울림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기를 원하는 곳이지만, ‘섬’이라는 제약은 제주도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구분된 공간으로 만든다. 종교학도는 ‘구분되고 분리된 공간’이라는 사실에 더 매료될 수 도 있다¹⁾.

제주도 답사를 통해 삶과 종교가 어우러지고 있는 공간을 방문하고 종교간 만남의 흔적을 직접 볼 수 있었다.²⁾ 한정된 답사 장소와 짧은 시간의 방문으로 제주도 종교지형 전반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답사를 통해 직접 본 장소와 현상을 중심으로 제주도 종교지형 특징의 단면을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공간과 현상들을 종교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이를 관찰하고 해석하여 1차적으로는 개별 종교현상을 설명하고 2차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1) 이처럼 제주도가 지닌 매력으로 서울대 종교학과에서는 2007년 제주도 학술답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매년 2회씩 진행되었던 답사를 1회로 줄였으며 답사인원도 불가피하게 한정해야만 했다.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닌 학술답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초부터 답사 장소 및 일정 등에 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9월에는 TF(Task Force)팀을 조직하였다. 유요한 교수님의 지도 하에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TF팀은 답사 장소 및 연관된 신화를 중심으로 어떠한 종교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이를 관찰하고 해석할지에 대해 사전 논의하였다. 답사 이후에도 TF팀 지도교수와의 면담과 서로간 논의를 통해 각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제주도 답사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종교지형을 분석한 본 글을 포함하여 『종교학연구』 26집에 실린 다른 두 편의 글은 제주도 답사에서 가장 호기심과 지적인 도전을 주었던 분야를 정리한 글이다.

2)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던 신당(神堂)들(와홀리·보곡리 본향당, 관청할망당, 대포 배린내갯당), 불교 포교의 역사와 갈등이 있었던 법화사와 관음사, 조선시대 유교의 중심지였던 향교(鄕校)와 유배된 유학자들의 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추사 적거지, 한국 가톨릭의 선교의 현장이자 성지(聖地)로서 기념되고 있는 성 김대건 신부 표착기념관 등이 이번 답사의 주요방문지였다. 개신교의 현장도 초기에는 고려하였으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

로 제주도 종교지형의 특징을 접근하고자 한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 제주도 종교지형 전반을 분석하는 과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 종교지형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전반부에서는 제주도 종교지형의 중심에 위치한 무속을 중심으로 신앙의 대상인 무신(巫神)과 삶과 종교의 어울림이 잘 드러나는 공간인 신당(神堂)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주도의 삶과 종교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성스러운 공간을 구성하고 재생산하고자 하는 종교적 인간의 시도를 확인한다. 후반부에서는 종교지형의 주변부를 살펴본다. 개별종교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기 보다는 종교지형의 중심과 주변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이들 간의 만남 속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아울러 이 지형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인간의 '영원회귀'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종교지형의 분석은 답사를 통해 얻은 경험과 이에 대한 관찰, 해석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의 제주도 종교현상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다수의 노력으로 제작된 종교학과 답사 자료집³⁾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II. 제주도 종교지형의 중심: 무속

1. 무속: 삶과 종교가 만나는 장(場)

오늘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제주도에서 종교지형의 중심을 운운하는 것은 자칫 종교지형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접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 종교지형의 중심으로 무속을 설정한 이유는 무속이 제주도 내 다른 어떤 종교보다 삶과 종교가 밀접히 만나고 있는 장(場)이기 때문이다.

3) 종교학과 학술답사 자료집(원제: 『삶과 종교가 어우러진 섬, 제주도 그곳에 가고 싶다』)은 종교학과 학부생들과 답사 기간동안 안내를 맡았던 윤순희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제주도의 환경은 내적으로는 농경이 곤란한 화산섬이었으며, 외적으로는 국가중심에서 분리된 주변부인 동시에 외세로부터 잦은 수탈을 당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강한 결속력을 지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원인⁴⁾이 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형성된 제주도 지역공동체는 같은 이유로 형성된 종교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만, 두 공동체의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한쪽 방향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속을 중심으로 한 종교공동체가 지역공동체를 강화시켜 주었다는 설명과 제주도 특유의 지역공동체가 종교공동체를 강화하였다는 두 설명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⁵⁾ 한편 제주도의 지역적 한계성은 현실의 벽에 부딪힌 종교적 인간이 초월적인 수단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종교적 열망을 표출하게 하는 동기로도 작용하였다. 이처럼 지역공동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의 종교적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형태는 ‘무속(巫俗)’이었다.

제주도에서 무속은 불교가 전래된 고려 이전까지는 제주 종교지형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다종교의 유입 이후에도 마을제, 당신(堂神)과 같은 무속 중심의 종교공동체는 지역공동체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개인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종교지형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무속은 외래 종교의 유입과 억압,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마을제와 당(堂)신앙은 여전히 그 기능을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무속은 미신(迷信)의 차원을 넘어서 세시풍습의 문화 혹은 문화제로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⁶⁾.

4) 이상철, 「제주 지역사회의 구조와 변동」,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서울: 백산서당, 2003), pp. 34-35.

5) 이 부분은 TF팀 결과 발표에서 종교학과 박사과정인 진상범이 「제주도 ‘마을’ 공동체성과 무속」라는 주제로 제시하였다. 진상범은 피터 버거의 ‘매개구조 이론(mediating structures theory)’과 사회학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가 근대화의 시련 속에서도 유지한 고유한 매개구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제주도의 종교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6) ‘탐라문화제’를 비롯한 문화제 혹은 문화로서의 무속을 수용하는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제주 마을 곳곳 신들의 축제」, 《연합뉴스》, 2007년 2월 16일,

제주도 종교지형의 중심에 위치한 무속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두 가지 측면은 신앙의 대상인 무신(巫神)과 신을 만나는 공간인 신당(神堂)이다.

2. 신앙의 대상: 무신(巫神)

무속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신(巫神)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이다. 한국 무속의 종교적 관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궁극적·초월적 존재에 대한 관념으로 이는 다른 종교 관념(인간관, 질서관, 실천 체험관, 회복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⁷⁾ 특히 제주도는 18,000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신들이 신화와 현실 속에서 수용되고 있는 공간이다. '18,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처럼 워낙 많은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류⁸⁾나 특징들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본 장에서는 '와홀리 본향당'과 '현씨일월당'을 중심으로 이들 신당(神堂)의 무신(巫神)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주도 무신 특징의 단면을 확인한다.

1) '와홀리 본향당'의 무신(巫神)

'와홀리 본향당'은 부부신(夫婦神)이 함께 좌정한 신당(神堂)으로 마을제의에서 중심이 되는 본향당이다. 본향당 신들이 등장하는 본향당 분풀이(신화)를 통해 제주도 무신의 특징인 신들의 위계질서와 성별에 따른 신격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는 지금 신(神)과 대화중」, 《세계일보》 2005년 2월 14일.)

- 7) 윤이흠 외, 『'94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 연구 결과 보고서: 한국인의 종교적 관념 연구』(서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1995), pp. 89-94.
- 8) 선행연구자들의 제주도 무신 분류체계를 요약하면, 김태곤은 자연신(自然神) 계통과 인신(人神) 계통으로 가장 넓게 분류하고 있으며, 진성기는 신의 출처 및 계보유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현용준은 신들의 서열을 지칭하여 이에 따라 4가지 신령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순애는 일반적으로 무속신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신, 마을수호신, 일가수호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서울: 백산서당, 2003), pp. 103-104.)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무신들은 본토에 비해 신들 사이에 서열과 위계가 잘 정립되어 최고신(옥황상제)에서 최하신(늘굽지신)에 이르기까지 위계질서가 잘 구분되어 있다.⁹⁾ 따라서, 당(堂)에 좌정한 신이 어느 계열의 몇 번째 신(神)인지도 분명히 드러난다. 와흘리 본향당의 경우 당신(堂神)은 ‘송당 소로소천국 열한번째 아들 산신평’이며 처신(妻神)은 ‘서울 서정승 따남애기’로 신위(神位)와 계보가 명확히 드러난다.

두 번째 제주도 무신의 중요한 특징은 성별에 따른 신격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당신(堂神)의 구성비율은 여신(女神)이 남신(男神)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한다. 비율상의 문제와 더불어 당(堂)의 일반적 호칭이(堂神이男神인 경우조차) ‘할망당’이라는 점은 제주도 무신에서 차지하는 여신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¹⁰⁾

한편, 성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신위(神位)의 변동이다. 와흘리 본향당 신화에서 나타나는 여신과 남신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본디 본향당의 주신(主神)이었던 여신은 외부에서 들어온 남신과 혼인을 맺는다. 남녀의 혼인으로 신위(神位)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신이 ‘부정(뚫고기부정)’을 범하면서 신위가 변화된다. 즉 남신이 당신(堂神)에 오르고 여신은 신당 아래에 좌정하고 제단마저 분리된다.¹¹⁾ 이 신화는 여신과 남신의 위치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신위가 다양하게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 ‘현씨일월당’의 무신

성산읍 신천리에 위치한 ‘현씨일월당’은 제주도 무신 중 ‘조상신’ (혹은 ‘일가수호신’)이 마을신이 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제주도에서 ‘일월조상’이라 불리우는 ‘조상신’은 가족의 일원이 다양한 계기¹²⁾를

9) 제주도에서는 신들의 위계를 ‘신드리’라고 하는데, 신들의 위계인 ‘신드리’는 신을 부르는 순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의를 담당하는 심방(무당)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심방의 첫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구조』 (서울: 집문당, 2002), p. 293.)

10) 하순애, *op. cit.*, pp. 111-113.

11) 『서울대 종교학과 학술답사 자료집』.

통해 신의 반열로 올라 후손에 의해 섬겨지는 신이다. 조상신을 섬기는 가족이 숫적으로 확대되거나 신을 모신 후 가문이 번창하게 될 경우 마을에서는 조상신을 마을신으로 모시게 된다. ‘현씨 일월당’은 후자의 경우로 젊은 나이에 죽은 현씨를 모시기 시작한 현씨 가문이 번창하게 되자 마을에서 현씨를 본향당신으로 모시게 된 경우다¹³⁾.

조상신이 마을신으로 승격되는 ‘현씨일월당’의 신화는 앞서 살펴본 ‘와홀리 본향당’에서처럼 제주도의 무신들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신들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밀접히 맞닿아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신들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신들 세계의 역동하는 변화는 근래에도 지속되고 있다.¹⁴⁾

제주도의 무신들의 엄격한 위계질서는 신들의 세계를 정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신위(神位)나 신의 형태가 변하는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신당(神堂)

신당(神堂)은 신(神)이 거하는 장소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신을 보고 만나기 위해 신당(神堂)이라는 장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신을 모신다. 이는 종교적 세계를 세속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 삶과 종교가 어울리는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종교적 인간의 소산이다. 그러나 신당은 인위적으로만 성립되는 공간은 아니다. 성현(聖現)의 경험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신당은 인간에게 신과의 조우를 허용하고, 인간은 신당 내부에 거주할 때 유한하고 제한된 현실을 넘어 초월적이고 영원한 순간에 다다르게 된다. 인간은 이 성스럽고 구별된 공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 제주도는 이러한 신당이 300개 이상 존

12)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파주: 집문당, 2005), pp. 229-247.

13) 진성기는 ‘현씨 일월’의 신명은 씨신이 된 현씨가 마을신이 되었다가 다시금 일월로 되비치는 데에서 유래한다며 ‘씨신 - 마을신 - 씨신’의 구조를 주장한다.(진성기, 『남국의 무속』(서울: 형설, 1987), p. 125.)

14) 1913년에 사망한 현만백 씨가 조상신으로 섬겨지다가 마을신으로 승격된 사례.(하순애, *op. cit.*, p. 115.)

재하고 있다.¹⁵⁾

많은 수의 신당만큼이나 신당을 구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신당은 각각 당의 성격(본향당, 일뤼당, 여드렛당, 해신당, 산신당),¹⁶⁾ 당의 위치(동산형(丘陵型), 전답형(田畝型), 천변형(川邊型), 해변형(海邊型), 잡목닝쿨형(樹林型), 궤형(巖窟型)), 당신(堂神)의 형태(통합형, 분리형, 공유형, 독좌형)¹⁷⁾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신당의 분류법을 통해서 각 신당의 특징이나 좌정한 신의 속성을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당의 위치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성과 속’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궤형(암굴형) 신당인 ‘보목리 본향당’은 일반인의 접근이 불편하며 세속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고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성스러운 공간으로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전답형 신당인 ‘와홀리 본향당’과 잡목닝쿨형 신당인 ‘현씨일월당’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길가 옆에 위치한다. 그러나 신당 주변은 각각 돌담과 수목으로 둘러 쌓여있어 길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분되고 분리된 특별한 공간을 형성한다. 처음부터 돌담이나 수목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을의 발전에 따라 돌담과 수목의 벽이 형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확인하기도 어렵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공간의 분리 문제가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성현(聖現)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은 성스러운 공간을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종교적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인위적인 공간의 분리와 구분은 다른 신당의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내 일부 신당은 신체(神體)와 연관된 신목(神木), 당집 등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간만이 남아 있는 신당의 경우에는 신당의 주변에 돌담을 쌓아 속된 공간과 분리시킨다. 이런 형태는 소위 담형 신당으로서 구좌읍 월정리 배롱개해신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⁸⁾

15) 진성기, 『제주도학』(제주: 제주민속연구소, 2006), p. 15.

16) 하순애, *op. cit.*, pp. 133-135.

17) 제주도, 『제주민속유적』(제주: 제주도, 1997), p. 59.

18) 하순애, *op. cit.*, p. 140.

4. 무덤: 죽은 자를 위한 구분된 공간

공간을 구분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신당이 아닌 다른 형태 — 통과례의 최종단계인 죽음과 연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에는 신당을 구분하는 돌담 외에도 집, 무덤, 밭을 구분하는 돌담이 많이 있다. 집 울타리인 ‘집담’과 밭 울타리인 ‘밭담’의 목적은 자연환경이나 가축들로부터의 보호라는 뚜렷한 목적¹⁹⁾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덤을 둘러싸는 ‘산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목적을 지닌다.

‘산담’ 역시 소와 말 등의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²⁰⁾도 있지만, ‘산담’은 이러한 표면적 이유 외에 다른 종교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보호 자체가 아닌 보호의 이유를 고려해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짐승으로부터 무덤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곳이 죽은 자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무덤을 죽은 자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는 ‘시문’이다.

‘산담’의 좌·우편(남자의 경우 왼쪽, 여자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설치)에 설치되는 ‘시문(혹은 神門)’²¹⁾은 죽은 자의 출입을 위해 산 자들이 만드는 물리적인 구조물이다. 이들은 무덤이 단순히 육체를 묻는 공간이 아니라 죽은 자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였으며 죽은 자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거주지로부터 바깥으로 출입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돌담 한 칸에 ‘시문’을 만들었다.²²⁾

19) 임제(林滌)는 ‘산에는 짐승, 들에는 가축이 있다. 천백 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다니는 까닭에 반드시 돌담을 둘러야 한다.’이라고 『남명소승(南溟小乘)』에 기록하고 있으며, 이형상(李衡祥)도 ‘밭과 집에 모두 담장이 있다. 다만 경계를 정할 뿐 아니라 말을 막기 위함이다’고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설명한다(고광민, 『돌의 민속지』(제주: 각, 2006), p. 95).

20) ‘무덤이 밭 속에 많다. 또 사면을 돌로 둘러쌌다. 소와 말이 들어가서 밟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김성구(金聲久), 『남천록(南遷錄)』(고광민, 위의 책, pp. 95-96에서 재인용).

21) *Ibid.*, p. 142.

22) 부부의 시체를 하나의 무덤에 묻는 합묘(合墓)의 경우에도 관을 안치하는 ‘광’

돌담에 둘러 쌓인 무덤이 신당(神堂)처럼 성현을 체험하는 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일생의 통과의례 중 마지막을 지난 망자를 위해 거주하는 (구분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삶은 물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향하는 종교적 인간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III. 제주도 종교지형의 주변부

지금까지 무속을 제주도 종교지형의 중심으로 보고 설명하였지만, 다른 종교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제주도 종교지형의 이해는 불가능하다. 현용준처럼 무종교인을 민간신앙층으로 인식하는 과감한 방법²³⁾을 택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제주도 전체인구의 약 51%를 차지하는 종교인들 중에는 불교(64%), 천주교(20%), 개신교(14%)와 같은 주요 종교들이 대부분을 차지²⁴⁾하기 때문이다.

이들 종교를 각각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종교지형을 이해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본 글에서는 개별 종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대신에 중심에 위치한 무속과 외곽에서 유입된 종교들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통해 종교지형을 접근하고자 한다. 한편,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스러운 공간의 구분짓기가 제주도 종교지형의 주변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톨릭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다.

은 각각 만들지만 이들 사이에 작은 구멍길을 만들어 놓는다. 현세의 관계가 사후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무덤이 이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구조』(서울: 집문당, 2002), pp. 335-336.)

23) 현용준은 1974년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제주도민 18.58%가 공식종교인이고 나머지 81.42%가 무종교인으로 나타남을 설명하고, 이들 무종교인이 곧 민간신앙층이라고 해석하였다.(현용준, *Ibid.*, p. 369.)

24) 2005 주택인구조조사에 따른 제주도의 종교별인구 수는 다음과 같다.(단위: 명)

항 목	내국인	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미상
인 구	530,686	272,590	173,658	38,183	54,764	1,687	1,212	617	29	2,090	3,671

(자료출처: <http://www.kosis.kr>)

1. 종교와 종교의 만남

무속 중심의 제주도에 외래 종교가 전래된 시기는 각각 다르다. 불교는 고려 문종 12년(1058) 전래되었으며, 유교는 조선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전래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종교의 유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교 간의 만남은 상호 용인의 경우도 있으나 갈등과 대립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속과 유교의 만남이다.

1) 유교와 무속

유교는 조선조에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유입되었다. 조선 태조의 명에 따라 태조원년(1392)에 최초로 제주향교를 설치되었으며, 태종 18년(1418) 대정(大靜), 정의(旌義)향교가 추가로 설치된²⁵⁾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유교적 세계관을 지닌 위정자와 유교 교육의 확대에 의해 제주도 내의 무속신앙은 유교로 대체되기 시작하였으며, 관혼상제, 부락(部落) 및 가신(家神) 신앙도 유교식으로 변화되었다.²⁶⁾ 특히 유교의 전래에 따라 마을제의가 당제(堂祭)와 포제(醮祭)로 분리되는 것은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무속과 유교의 충돌의 가장 극적인 양상은 숙종 28년(1702) 제주목사 이형상에 의한 신당과 사찰의 파괴 사건이다. 이형상 목사는 “광양당을 헐고 삼읍 음사(陰祀)와 절집(佛宇) 130여소를 불사르고 무격(巫覡) 400여 명을 잡아 곤장으로 벌을 주고 귀농(歸農)시켰다²⁷⁾” 도

25) 제주도 내에 유학 교수관 파견을 요청하는 상소문에 의하면, 이미 제주에는 2백명 이상의 유생이 있었다.(復差濟州儒學教授官 禮曹據濟州牧官呈上言 州及任內儒生二百餘人 詞訟雜務煩劇 雖以判官兼教授官 實難教訓 請依前例 別差教授官 旌義 大靜學校 並令考察 以振文風. 『太宗實錄』 18년(1418) 4월 18일)

2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구조』(서울: 집문당, 2002), p. 368.

27) 김시습, 『耽羅紀年』, 제주도 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제주: 제주도 교육연구원, 1976), pp. 401-402.

내 사찰과 신당에 큰 타격을 준 이 사건은 유교가 전래된 지 3백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주도는 무속과 불교가 성행(당 오백 절 오백)했음을 보여주며, 유교와 무속간의 갈등 혹은 일방적인 억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극단으로 치달았던 유교의 억압은 기층민들의 요구에 따라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이형상 목사가 파괴했던 신당 중에는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 다른 목사가 취임했을 때 재설치된 경우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동후 목사 재임 중에 재설치된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이다.²⁸⁾ 불교의 경우 ‘조선말 도내에 사찰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²⁹⁾는 기록으로 보아 외래에서 유입된 불교는 또 다른 외래 종교에 의해서 명맥이 끊길 정도까지 이르렀지만, 뿌리 깊이 삶과 연결되었던 무속은 민중들의 요구에 의해 일부 인정되거나 유교와의 상호 습합과정을 통해서 지속되었다. 다음의 두 신당은 유교와 무속이 서로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 유교적 질서로의 수용: 관청할망당(안할망당)

남제주군 성읍리의 ‘관청할망당’은 유교적 질서내로 무속을 수용한 사례이다. ‘관청할망당’의 기원은 관청 서쪽에 위치한 팽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삼아 석단을 쌓고 비녀와 옥구슬 등의 제물을 바치는 것³⁰⁾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당건물을 세워 기와 속에 신체(神體)를 보관하고 있다. 풍운뇌우단과 같이 신당을 복원한 일도 기층민의 요구를 위정자가 존중한 사례이지만, 관청 내부로까지 무속을 허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궁궐에도 유교에서 음사(陰祀)로 비격된 종교형태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왕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반면, ‘관청할망당’은 위정자의 통치 범위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28) 壬申命立風雲雷雨壇於濟州 先是 濟州自設郡初 有風雲雷雨壇 自本州致祭 牧使李衡祥以爲 非州官所可私祀者 狀聞罷之 其後島中連年飢荒 穰疫不息 舟民以爲祟在壇祀之罷革 訴于今牧使鄭東後請復 而東後聞于朝 至是禮曹奏請許之 世子從之 自是歲自京師 下送香祝以祝之(『肅宗實錄』 45年(1719) 11月 4日)

29) 이상철, *op. cit.*, p. 36.

30) 한국문화유산답사학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려수도와 제주도』(서울: 돌베개, 1998), pp. 302-304.

하고 배려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2) 무속으로의 수용: 와홀리 본향당

유교가 전래된 이후 마을제가 당제와 포제로 구분되었으나 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의례의 기획과 시행에서 남성이 중심된 역할을 담당하는 포제는 여성이 중심되는 무속(堂祭)과 달리 유교식 기반 하에 진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마을 및 가사의 안녕, 농사의 풍요 등을 기원하는 무속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포제는 유무습합(儒巫習合)적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으나 적어도 그 시행주체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와홀리 본향당’의 경우는 여성 중심의 제의가 진행되는 전형적인 당(堂)임에도 불구하고 제의 과정에 유교의 제관들이 참여하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신년과세 때에 본향당에서 심방이 주관하는 제의에 의복을 갖춘 제관(삼헌관)이 참여하며 심방의 지시에 따라 제를 올린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당제와 포제로 구분되기 이전의 원래적인 마을굿의 형태³¹⁾라고까지 한다.

이처럼 무속과 유교의 만남이 갈등을 넘어 민중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서로 포용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종교지형에 발견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종교현상은 다른 종교의 만남, 불교와 무속 간의 만남에서도 발견된다.

2) 불교와 무속

불교와 무속의 만남은 갈등보다는 자연스런 상호 습합 현상이 일어난 형태이다. 먼저 불교가 무속으로 수용된 현상은 불교적 신명(神名)을 지닌 당신(堂神)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내 208종의 당신(堂神) 중, ‘천신불도또’, ‘석상미륵’ 과 같은 불교적 신명을 지닌 당신(堂神)은 14종³²⁾으로 이러한 습합현상은 반대의 경우에도 종종 나타난다. 또한, 무속의 외형적 형태 속에 불교적 세계관을 수용한 제주도의 ‘시왕맞이굿’도 무속과 불교 간의 습합을 보여주는 사례³³⁾

31) 제주도, 『제주민속유적』(제주: 제주도, 1997), p. 59.

32) 하순애, *op. cit.*, pp. 103-116.

다.

이러한 습합 현상들은 비교적 최근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는 ‘관음사’에 위치한 ‘방사탑’과 연관된 사례이다. ‘방사탑’의 원래 명칭은 ‘거육’, ‘액탑’, ‘가마곶동산’, ‘하르방’ 등으로 ‘방사탑’은 풍수적으로 기(氣)가 허한 곳을 보충하거나 마을 길목에 세워 악령으로부터 마을의 단녕을 보장하기 위해 세우는 탑을 말한다.³⁴⁾ 돌을 쌓아 만드는 ‘방사탑’은 원뿔형, 사다리꼴형 등의 몸체 위에 ‘새 모양의 돌’, ‘사람형태의 석상’, ‘꼭대기에 나무 새가 있는 장대’ 등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관음사’에는 이러한 ‘방사탑’이 사찰 내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방사탑’ 꼭대기에는 불교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구형(球形)의 물체를 놓고 있다. 제주 무속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불교 사찰 내부에 위치시키는 점이나 기존의 방사탑과는 달리 그 위에 불교적 상징을 두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교와 무속이 만나 자연스런 동화(습합)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3) 기독교와 무속

기독교와 무속의 만남은 주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종교지형의 분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하순애는 개신교와 무속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초기에 설립된 개신교 교회들의 위치와 해당 지역 무속의 쇠퇴 현상을 연관짓는다. 금성교회(1908), 용수교회(1913), 한림교회(1915), 고산교회(1916), 두모교회(1920) 등 제주도 서북지역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교회들과 해당 지역에서의 무속의 쇠퇴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교회가 인근에 비해 집중적으로 위치한 구좌면 세화리와 인근 지역과의(민간 신앙의) 비교를 통해 교회가 밀집된 지역에서 무속이 쇠퇴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³⁵⁾

33) 김성은, 「한국의 무속과 민간불교의 혼합현상」, 『종교학연구』(서울 한국종교학 연구회, 2005), pp. 81-82.

34) 고헌민, *op. cit.*, pp. 132-133.

35) 하순애, *op. cit.*, p. 246.

이러한 주장은 가톨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 서쪽 지역은 가톨릭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이 곳 해안은 한국인 최초로 신부 서훈을 받은 김대건 신부가 표착하여 첫 미사를 진행했던 곳으로 오늘날 제주도 가톨릭 성지의 대표적 장소이다. 이곳 기념관을 방문하였을 때 안내를 해 주었던 한 신부에 따르면, 제주도 서쪽에서부터 시작된 가톨릭의 포교와 이 지역의 무속의 분포가 낮은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오늘날 가톨릭 성당의 분포가 이곳 서쪽 해안과 서북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것도 위의 개신교와 경우에서처럼 이들 기독교의 영향이 무속을 감소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이처럼 제주도에서 종교와 종교 간의 만남은 각 종교에 따라 갈등, 융합, 상호 공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성스러운 공간의 기획

전반부에서 제주도 종교지형의 중심으로서 무속을 살펴보면서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스러운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성스러운 공간의 구분은 중심부뿐 아니라 주변부를 포함하는 종교지형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 용수리에 위치한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관’이다.

역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성스러운 시공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 인간의 특징이다. ‘성 김대건 신부 표착기념관’은 바로 그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적 열망의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최초’로 한국인 신부가 도착한 ‘그 곳’에서 거행된 ‘첫’ 미사는 가톨릭 제주도 포교의 상징적인 사건이자 ‘처음의(ab origine)’ 사건³⁶⁾이다. 가톨릭에서는 이곳에 ‘기념관’이라는 물리적 구

36)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기념관은 TF팀 내에서 공간의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되었다. 성스러운 공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성스러운 시간으로의 회귀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주장도 있었다. 종교학과 석사과정 김창현은 「김대건 신부의 제주도 표착과 그 의미」라는 글을 통해 김대건 신부를 성인(聖人)으로 추앙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인(聖人)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태초의

조물을 건축함으로써 (마치 고대인이 제단이나 신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성스러운 공간을 구체화하고 있다.

고대의 인간이 처음에 일어났던 것을 의례의 힘으로 반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³⁷⁾으로 기념관을 방문한 이들은 일정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태초의 시간과 장소를 경험하게 된다.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되는 관람순서에 따라 성유물(聖遺物)을 경배하고 ‘처음의’ 사건을 눈으로 경험하게 된다. 김대건 신부의 흉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관람은 김대건 신부의 여정을 확인하게 하고 제주도 및 가톨릭 포교사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순례를 마친 관람객이 나오는 출구 옆에는 ‘성 김대건 신부 유해공경실’이 위치해 있다. 신심(信心)이 있는 신자라면 기도하기 원하는 ‘그 시점’에 기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고도화된 의례로서 고대인이 의례를 통해 성스러운 시공간으로 회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념관을 방문하여 일정의 과정을 거친 이들을 성스러운 시공간으로 회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처럼 성스러운 공간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영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망은 중심과 주변, 과거와 오늘 양쪽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주도 종교지형의 특징이다.

IV. 맺음말

제주도만이 삶과 종교가 만나고 어우러지는 공간은 아니다. 종교적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삶과 종교가 어울려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 밝혔듯이 제주도는 삶과 종교가 밀착되어 있으며 종교의 초기형태였던 무속이 풍성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에 특별하다. 자연 속에서 인간들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는 서로 맞닿아 있었으며 이들의 삶도 서로 얽혀 있었다. 신과의 만남은 현실적 상황을 초월적으로 극복하는 매개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모인

순간에 세계를 창조한 하느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다’며 성인(聖人)을 통한 성스러운 시간으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37) 엘리야데, 『신화와 현실』, 이은봉 역(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5), p. 23.

공동체는 굳건한 연대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시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는 매개로 작용하였다.

제주도 종교지형에 위치한 무속과 더불어 이후 유입된 다른 종교와의 만남 속에서도 갈등과 습합의 상반된 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삶과 종교가 밀접히 닿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질적인 종교들을 삶의 영역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종교간의 타협(습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질적인 종교들이 서로 배척되는 가운데 각자의 종교를 더욱 공고히 하며 새로운 종교적 시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삶과 종교가 역동적으로 만나고 있는 공간이 제주도이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가장 큰 아쉬움 중의 하나는 익일부터 시작하는 제주도 최대 축제로 불리는 ‘탐라문화제’를 두고 제주도를 떠나야 했다는 점이다. 무속이 여전히 종교로서 작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통계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다원적인 종교상황은 무속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세시풍습의 문화와 문화제로서 무속을 승화시키고 있다. 과거와 같이 극복 불가능한 현실을 초월하는 신앙적 성격은 약화될 수도 있지만, 삶과 문화로서 무속을 수용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탐라문화제’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과거와 다른 그러나 여전히 역동적인 삶과 종교의 어울림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太宗實錄』

『肅宗實錄』

『耽羅紀年』

고광민, 『들의 민속지』, 각, 2006.

김성은, 「한국의 무속과 민간불교의 혼합현상」, 『종교학연구』 24, 한국종교학연구회, 2005.

윤이흠 외, 『'94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 연구 결과 보고

- 서: 『한국인의 종교적 관념 연구』,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1995.
- 이상철, 「제주 지역사회의 구조와 변동」,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 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제주도 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제주도 교육연구원, 1976.
- 제주도, 『제주민속유적』, 나우인쇄출판사, 1997.
- 진성기, 『남국의 무속』, 형설, 1987.
- 진성기, 『제주도학』, 제주민속연구소, 2006.
- 표인주, 『공동체신앙과 당신앙연구』, 집문당, 1996.
- 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 백산서당, 2003.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려수도과 제주도』, 서울: 돌베개, 1998.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구조』, 집문당, 2002.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Religious Topography in Jeju Island

An, Kuk-j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igious topography of Jeju island, following a exploratory trip made by the Dept. of Religious Studies of SNU. On Jeju Island, there is a dynamic and vigorous interaction between human life and religion. The harsh environment of Jeju Island ha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local communities which can be often equated to religious communities. It is the result of people who failed to overcome the hardships attempting to seek a religious solution.

The religious topography of Jeju can be explained with aspects of the central and the peripheral. In the central part, Shamanism (巫俗) is located. It was the only religious pattern till the Korea Dynasty. Although various religions have been imported, shamanism has taken charge of the main role in the religious topography. In the peripheral part, there are various religions such as Buddhism,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They adjoin shamanism which form the central part. Both of two parts affect each other and there are divisions of sacred space which are found in both parts. On Jeju island, inter-religious contacts and mutual influence among the religions still continue today.

Key word: Jeju island, religious topography, Shamanism, syncretism, the division of the sacred space